

‘투기’란 무엇일까



이수준 역

부동산 수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차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투자규제가 풀린 지역의 급매물을 위주로 조금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우려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하락장이든 저점에착이든 투기세력이든 늘상 들던 말이지만 새삼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

투기는 무엇이고 투자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투기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는 표준국어대사전도 마찬가지다. 사전상의 의미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해 ‘투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짧은 정의로는 근본적인 의문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리스크(Risk)의 존재 여부, 그 크기 정도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까. 경

계학에서 말하는 ‘투자’의 종류는 이렇다. 전통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이 있고, 대체투자로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사적, 공적 자산이 주를 이룬다.

은행예금 등은 투자도 투기도 아니다. 이 유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든 투기든 리스크를 안고 있기는 매 한가지이기 때문에 그중 리스크가 큰 것만 투기라고 부르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외국에서는 투기라는 단어를 한국과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투기의 사전상의 의미에 누구보다 충실해 온 그랜트 카돈, 워렌 버핏 등을 투기꾼으로 치부하지도 않는다. 투기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굳이 투자(Investment)와 구분해서 Speculation이라고 쓴다. 이 단어는 ‘본다, 관찰한다, 착시한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Speculatio에 유래하며, 결과에서 실물, 현물이나 원인을 파악한다는 추론의 의미로 이해했다고 한다.

즉 일종의 가능성을 선취해서 그 진위를 추론한다는 도박적인 요소를 내포하지만, 이는 많은 성공적인 자산가들이 투자의 동기로도 삼아온 하나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투기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

리 사회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을 감지 않게 보며, 각종 징벌적 규제를 가해 왔는가. 아마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까지의 이익배분과 그 국민정서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그 정책실패를 전가하는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투기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필자 또한 투기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추구하는 그 최소한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본다.

투기: 국민의 기초 생활에 밀접하여 원활하고 고른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자 본인의 실용성에 큰 관계가 없음에도 단기간의 큰 수익만을 얻고자 확실치 않은 정보 또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에 기대어,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스스로도 지나치게 큰 리스크를 감내하는 도박성 행위.

부동산 하락장에서 가능성을 보고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기회는 하락장에서 더 많이 있었다. 투기라는 말에 지나치게 위축되어 왔다면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을 리도 없다. /로이애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어린 어른들의 수집품



기지 수첩

김서현
(유통&라이프부)

유통가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번 밸런타인 데이와 화이트 데이는 그야말로 캐릭터 열전이었다. 수많은 인기 캐릭터들이 총출동 했고 몇몇 상품은 판매 시작과 함께 품절돼 중고시장에서 웃돈까지 붙었다.

문구에 알록달록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이 얼핏 보기엔 초등학교생 나이쯤에나 좋아할 듯 하지만 정작 구매자 연령은 2030세대였다. 가장 활발히 연애를 하고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할 2030세대가 연인의 날을 겨냥해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또 희한한 일이다. 과자에 든 작은 오투기를 모아 진열하고 스티커를 수집

해 차곡차곡 붙이고 이 모든 일들이 2030세대가 하는 일이라니! 20년 전 쯤이면 나잇값 못하는 짓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다.

캐릭터 컬래버 상품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든다. 주변 친구와 동기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어느 덧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이다 보니 조카 선물을 종종 사러 간다. 잘 모르니 추천을 받으면 또 붓, 신비아파트, 시크릿 주주, 캐치티니핑, 포켓몬스터 등을 추천해준다. 어린시절 주주인형을 가지고 놀기는 했지만 내가 기억하던 것과는 영 다르고, 포켓몬스터도 피카츄를 빼곤 생소한 캐릭터들이다.

다시 캐릭터 컬래버 상품들을 보면 이들 브랜드는 실종된다. 편의점 계산대 아래 4.5살 난 아이들의 눈높이쯤에는 주주립스틱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잘 띄는 선반에는 아이들은 처음 보지만

기자에겐 익숙한 상품이 가득하다.

2030세대들이 어린 시절 열광하던 캐릭터 상품을 ‘플렉스(Flex)’하고 여기에 유통가 전체가 매달리는 모습은 당연하면서도 어색하다. 이들 세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거리낌 없다거나 40대만큼이나 큰 구매력을 보인다면 하는 마케팅 타깃으로서의 특성을 지우고 보면, 캐릭터와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린 어른’들의 모습이 남는다. 작고 소박한 캐릭터에 즐거웠던 어린시절을 떠올리고 남 눈치 안 보고 수집품을 자랑도 하는 모습은 어린이들과 다르지 않다. 취향에 당당해진 청년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재미있는 모습이지만, 여느 때보다도 청년이 기댈 곳 없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결과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 경기가 나아지면 캐릭터 컬래버 열풍도 끝나는 걸까?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6일 (음 2월 25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운명론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있다. **48년생** 새벽꿈에 조상님을 뵈고 오다. **60년생** 먼저 존중하면 마음을 얻는다. **72년생** 오후에 미팅 약속. **84년생** 부귀와 빈천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지체로 극복이 된다.



소

37년생 돌아다니며 시비 일으키지 말도록. **49년생** 믿고 의지하던 친구와 의견대립이 생긴다. **61년생** 굶이 굶이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73년생** 맑은 일을 훌륭히 완수. **85년생** 이간질에 대꾸하지 말라 제풀에 물러나게 된다.



호랑이

38년생 신발장이 어지럽고 혼탁하면 집안 분위기가 혼탁해진다. **50년생** 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그만. **62년생** 외출할 때 차량양보로 조심. **74년생** 인생에 휘말리게 되니 본전 찾기 힘들다. **86년생** 다림질 헛바퀴 돌리려 단조로운 하루.



토끼

39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 **51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63년생** 우리 개는 순해요 하지 말고 키우려면 동물에 대한 에티켓을 꼭 지켜야. **75년생** 2시약속이 취소가 된다. **87년생** 기회는 균등하다.



용

40년생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52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64년생**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76년생** 다른 사람의 귀함을 헐뜯지 말고 자기를 다스려볼 것. **88년생** 아침부터 음주가 웬 말.



뱀

41년생 좋은 일이라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53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65년생** 재물을 얻는데 때가 있으니 기본에 힘써볼 것. **77년생**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89년생** 모든 일에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말

42년생 자식의 효도로 외로움이 희석된다. **54년생** 잔치에 초대받을. **66년생** 오전에 등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78년생** 집안 제삿날이니 일찍 귀가하자. **90년생**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올수도 있음이다.



양

43년생 경제적 이득을 본다. **55년생** 나누다보면 누릴 수 있다. **67년생** 초기에는 절약과 저축으로 부의 기분을 만들자. **79년생** 조직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접도록. **91년생** 예부터 아름다운 미인 중에는 기구한 운명이 많다고 했다.



원숭이

44년생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자식이라 할지라도. **56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68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80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새롭게 진출. **92년생** 성공하려면 고생이 따르는 것이다.



닭

45년생 자연에서 노니는 즐거움이 있다. **57년생**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리석지 말도록 각주구검(刻舟求劍) **69년생** 목표가 없으니 밤길을 헤매는 것 같다. **81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도달. **93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개

46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58년생** 집안 대청소는 심기일전 도움이 된다. **70년생** 이기심으로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린다. **82년생** 깊은 밤길을 홀로 다니지 않도록. **94년생** 인생의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분하여 세우자.



돼지

47년생 해 주기도 욕먹는다는 말이 실감난다. **59년생**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71년생** 부모님께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당황. **83년생** 돈과 부귀는 중요한 것이다. **95년생** 결국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기 마련.

김상회의四季

사주학 풀이 ⑯



명리학에서 인수印綬는 문서 어머니로 칭한다. 집안싸움 하는 경우를 많이 볼 것이다. 어머니(인수)와 형제(비견겁)가 시기질투로 결속하여 나를 골탕 먹인다. 신申월의 임자壬子일인 경우 신申어머니는 나壬보다 동생子만 끼고 샘을 낸다. 신자申子 비견겁은 재財(마누라)를 극하므로 어머니가 살살 마누라를 고립시킨다. 여자가 축丑月의 신유辛酉일인 경우 딸(여자)은 어머니가 친구 같다. 어머니로 인해 맨날 돈이 없어진다. 외가에서 돈 꾸러온다. 책을 분실하며 동낭공부이다. 운 좋을 땐 장학금이다. 귀금속 잃어버리고 노력은 하나 대가가 없고 공은 타인에게 돌아간다.

인수와 비견겁이 많은 사람은 대다수 친구보증서주고 종래는 거지 되고 만다. 매매賣買에 손해요 방해받는다. 비견겁날에 물건사면 비싸게 사고 있는 것 또사고 헛것 산다. 좋게 연결되면 결과가 좋다. 시작(인수)은 좋으나 결과(비견겁)가 부실하고 죽여서 개준다. 비견겁 하나만으로도 동업수이니 동업으로 시작한다. 그 결과는 일주가 약한 사람은 이득, 강한 사람은 종래는 손해 본다. 만약 신약사주가 동업을 해서 성공했다면 서로 갈라서고 혼자하면 실패한다. 왜? 능력부족이니까.

여기서 동업은 인정 많은 사람에게도 동업하라고 한다. 인정이 많으면 친구들이 손 벌리는 경우에는 모두 주게 되지만 동업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서 못주니까. 기사일己巳日 유시酉時인 경우 사화巳火 인수가 변해서 사유금巳酉金으로 상식이 되었다. 배운 것은 하나인데 써먹는 것은 사유巳酉로 둘이니 하나 배워서 둘을 써먹는다. 또는 즉시 사유금으로 변하니까 배운 즉시 응용하고 써먹는다. 그러나 하나(巳)들어오고 둘(巳酉)이 나가니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손해다. 인수는 들어오는 것이고 상식은 나가는 것이기에.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5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6			5		
8				1		2
					6	7
	1					8
6		8		5	7	4
5					9	
3	2					
1				6		9
			5			4

		2	6			5		
					3	6		
					5	8		
3	4					1		
2								4
		5					2	6
		7	3					
		4	5					
		1			4	2		

정답

ㄷ	ㅅ	ㅁ	ㄱ	ㅅ	6	8	ㄴ
6	ㄴ	ㄱ	8	9	ㄷ	9	ㅁ
9	ㅁ	8	ㄴ	ㅅ	6	9	ㄷ
9	6	ㅁ	ㅅ	ㄷ	8	ㄴ	9
ㅅ	ㄴ	ㄴ	6	9	ㅁ	8	9
9	8	ㄴ	ㄴ	9	ㅅ	ㅁ	6
ㄴ	9	6	ㄷ	8	ㄴ	ㅁ	9
ㄱ	ㄷ	9	9	ㅁ	ㅅ	ㄴ	6
ㅁ	8	ㅅ	6	ㄴ	ㄷ	9	ㄴ

ㄴ	9	ㄱ	ㅅ	9	8	ㅁ	ㄷ	6
ㅁ	9	ㄷ	ㄴ	6	9	ㅅ	ㄴ	8
8	6	ㅅ	ㄴ	ㄷ	ㄴ	9	9	
9	ㄴ	6	8	ㄷ	9	ㅁ	ㄴ	ㄴ
ㅅ	ㄷ	ㄴ	ㅁ	9	6	9	8	ㄴ
9	8	ㅁ	9	ㄴ	ㄴ	6	ㅅ	ㄷ
6	ㄴ	8	9	ㄴ	ㅁ	ㄷ	9	ㅅ
ㄴ	ㅁ	9	ㄷ	ㅅ	ㄴ	8	6	9
ㄷ	ㅅ	9	6	8	9	ㄴ	ㅁ	ㄴ

과·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